능인학원 제23대 이사장에 도진 스님

4월 4일 취임법회… "소통으로 학교발전"



대구지역 불교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능인학원 제23대 이사장에 직지사 중암 회주 도진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은 4월 4일 능인중·고등학교 법당에서 제23대 이사장 도진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법회에는 능인학원 이사 법광 스님(도덕암 주지)과 철산 스님(보경사 주지), 감사 성효 스님(분황사 주지)과 덕유 스님(동화사 자비원장)을 비롯한 스님과 김원술 능인고교장, 김상만 능인중학교장, 김인수 총동창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진 스님은 "능인학원은 80년 전 어려운 시절에 선각자 스님들께서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종립학교로,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불타정신 구현에 걸맞은 참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교과목의 범주를 벗어나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것이 불타 정신의 구현"이라며 "인사의 공정성, 엄격한 상벌제, 운영의 투명성을 기조로 기강을 확립하고, 구성원간 소통 면학 분위기 확산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대표에 능행 스님



새로 창립된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에 정토마을 이사장인 능행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능행 스님은 4월 10일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서 열린 울산불교환경연대 창립식에서 상임대표로 임명됐다. 능행 스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불살생 사상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살려내는 울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울산불교환경연대는 능행 스님을 비롯해 울산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 등 9명의 공동대표단을 꾸렸다. 또 운영위원 11명 등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박진형 기자

최승천 조계종출판사 사장에 임명



조계종출판사 부문사장에 최승천 출판사업부장〈사진〉이 4월 9일 임명됐다.

이에 앞서 조계종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는 3월 28일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도반HC의 도서출판, 총판, 서점 운영을 일원화하고 부문사장을 선임키로 결의했다.

최승천 부문사장은 1985년 주간불교 기자로 불교계 언론사에 입문해 법보신문·금강신문·미디어붓다에서 활동했으며, 도서출판 명상·설법연구원·조계종출판사 편집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영화 만들려고 불교소설 펴냈죠"

Interview

영화제작 앞서 〈공유〉 펴낸 김행수 감독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영화 제작비 마련 위해 집필
진공묘유 속 구법여행 중심
"불교영화에 대중 관심 절실"

"오래 전부터 불교영화를 만들기 위해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한 제작투자자를 구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더군요.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작비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로 펴냈습니다.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불교계 관심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1985년 영화 '단(丹)'으로 데뷔한 김행수 영화감독이 구법 장편 불교소설 〈공유〉(도서출판 말벗)를 펴냈다. 그가 이 소설을 펴낸 이유는 단 하나. 불교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는 10년 가까이 불교를 주제로 한 작품 시나리오를 품고 다녔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작비 마련을 위해 직접 소설을 썼다.

"유구한 역사의 불교문화는 전통의 보존이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 맞춘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인구 감소를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문화로 접근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현재 불교계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낮습니다. 영화감독들이 불교를 주제로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김 감독이 쓴 소설 〈공유〉는 진공묘유(眞空妙有)에서 가져온 것으로 산중 노선사인 묵계 스님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묵계 스님은 과거 어느 노보살의 부탁으로 받아들인 어린 상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들이 갑작스레 떠나버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늘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결국 대중법회를 통해 진리의 골수를 전하고 열반에 들려 했으나 폐인이 돼 나타난 상좌로 인해 법회가 무산된다. 누더기 차림의 상좌는 묵계 스님에게 "사기 그만 치라"고 소리를 내지를 정도로 변해 있었다. 이에 묵계 스님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고자 변해버린 상좌를 데리고 사계절을 보내며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이 소설의 스토리라인이다.

김 감독의 이 같은 시나리오는 최근 정통 불교영화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내용이다. 특히 불심 깊은 원로 배우인 전무송 씨도 출연을 자처하고 크랭크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계종 전국 선원수좌회도 김 감독의 책을 읽고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 김 감독은 초기 제작비가 마련되는 대로 주연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전통의 삭발식을 실시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관건은 제작비 마련이다.

"개신교인이 개신교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주위의 성원이 뒤따르고 영화도 어느 정도의 흥행이 보장되죠. 하지만 불교인이 불교영화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대중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에 도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교계가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콘텐츠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교의 문화콘텐츠 생산은 소비가 뒤따를 때 커질 수 있습니다."

김행수 영화감독은 다큐멘터리 '신라승 김교각' '재일동포 아! 나는 누구인가' 등의 기획 제작 시나리오 감독으로 참여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학교 밀짚모자'를 만들고, 교장으로서 재능기부 봉사도 꾸준히 펼쳤다.

"서산대사 남북 합동추계제향 추진"

해남 대흥사, 4월 7일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호국명승장 서산대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탄신 497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4월 7일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관계기관, 불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했던 팔도선교도총섭 승군장이자 대선사인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제향행사를 열었다.〈사진〉

서산대제는 예제관 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국가제향 제현과 법어, 헌다, 헌화 등 법요식이 함께 열렸다.

이날 설정 스님은 법문에서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신 애국애족의 뜻은 충심이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것이요, 심이라는 것은 말에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충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월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때 스님이 사용했던 갑옷, 모자 등이 북한 묘향산 수충사에 보관돼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좋지 못해서 가지 못했는데 오는 10월 추계대제향은 묘향산 수충사에서 봉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흥사 측은 "조계종과 대흥사는 올 가을 서산대사가 입적한 북한 묘향산에서 남북 합동추계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흥사 보현전 인근에 호국대전이 250평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조대왕 때부터 해남, 순천 등 전라도 5개 마을이 합동으로 주관해 매년 봄·가을 국가제향으로 봉행되던 서산대제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여 년 전부터 불교식 제향을 실시해 왔다. 이후 대흥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옛 문헌 〈표충사 향례홀기〉와 〈진설도〉 등의 기록을 근거로 2012년 유교식 국가제향을 복원해 매년 봄에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

난정2 A팀 우승… 105개팀 참가



강화도 전등사(주지 승석)는 4월 9일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서 '제13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105개팀 750여 명의 선수와 노인회 회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서는 교동면 난정2 A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교동면 지석 A팀은 준우승, 교동면 난정2 C팀과 서한 A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윤호섭 기자

무심사, 제11회 수륙용암대재

4월 8일, 대중 300명 방생법회도



대구 달성군 무심사(주지 무심)는 제11회 수륙용암대재 및 방생대법회를 4월 8일 봉행했다.

주지 무심 스님은 "수륙용암대재는 지수화풍 4대 신에게 마음의 작용으로 가정의 안락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이라며 "사부대중은 닦은 대로 거두는 불교의 교리를 바로 알아 우주의 근본자리인 주인공, 참 나를 발견해 영혼을 밝혀 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임제조계종, 창종 11주년 행사

여수 청암사 인근서 경로위안잔치



임제불교조계종(종정 지암)은 3월 31일 여수 청암사 인근서 창종 1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종정 지암 스님, 불교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스님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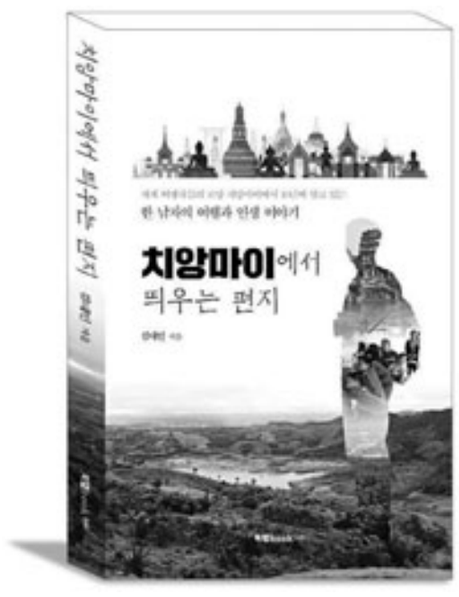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 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